

현민 여러분께 '미야기 B A.5 대책 강화 선언' 관련 요청을 드립니다

본현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7 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7 월 29 일에는 역대 최다인 3,711 명을 기록했고, 요양자 수도 역대 최다를 연일 기록 경신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 없는 감염 확산 국면을 맞고 있어 의료 부하는 계속 커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염 상황이 지속되면 병상도 조만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대책본부에서는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응하는 도도부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이상의 의료 부하 증가가 인정되는 도도부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판단에 따라 'BA.5 대책강화선언'을 하고 주민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협력 요청과 호소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현의 현재 의료 부하 증가 상황과 더불어 여름휴가와 추석기간 중 인파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감염확대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민이 다시 한번 기본적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 모두가 감염 위험을 낮추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야기 BA.5 대책강화선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과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언이 사회경제활동 유지와 의료 붕괴 회피의 양립을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감염 위험 저감을 위해 추가 감염방지대책에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년 8 월 5 일

미야기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본부장 무라이 요시히로